

주여, 나를
평화의로구로 써 주소서
(롬 5:10)

“주님의 숲” 3월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_ 행 13:23

담임목사님 글

올해는 추석이 이르다. 9월 18일 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몇 십 년만의 처음이라는 올해 무더위도 시간을 이길 수는 없었고, 벌써 아침과 저녁으로는 스산한 가을바람이 옷깃에 스민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인간의 작은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계절의 섭리 또한 하나님의 원대한 설계의 일부일 터이다.

지난 9월 1일 주일 설교에서, 이강찬 목사는 ‘주인의 궁극적인 관심’에 대해 설명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마 13:29~30)는 말씀에 숨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되새겨 보게 하는 귀한 설교였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여나 곡식이 다칠까 염려하는 마음이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요, 우리의 몫이 아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뽑느라 선한 것이 다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며, 남에게서 보이는 티끌을 정죄하느라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그를 선불리 심판하는 잘못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가을을 맞아, 우리 앞에 추수를 앞둔 황금빛 들판이 놓여 있지만, 그 속에서 정작 무엇이 가라지이고 무엇이 곡식인지를 고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터이다. 우리는 그저 너른 들에 익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가득함을 만끽할 일이겠다. 농부는 알지 못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고 씨앗을 뿌린다. 그 씨앗에 물기를 주어 싹을 틔우고, 햇빛과 비를 내려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니, 이를 믿고 추수 때를 기다리는 이가 농부이며, 그것이 바로 추석을 맞아 되새겨 봐야 할 ‘농부의 믿음’일 것이다.



올해는 추석이 이른다. 9월 18일 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몇 십 년만의 처음이라는 올해 무더위도 시간을 이길 수는 없었고, 벌써 아침과 저녁으로는 스산한 가을바람이 옷깃에 스민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인간의 작은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계절의 섭리 또한 하나님의 원대한 설계의 일부일 터이다.

지난 9월 1일 주일 설교에서, 이강찬 목사는 ‘주인의 궁극적인 관심’에 대해 설명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마 13:29~30)는 말씀에 숨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되새겨 보게 하는 귀한 설교였다.

올해는 추석이 이르다. 9월 18일 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몇 십 년만의 처음이라는 올해 무더위도 시간을 이길 수는 없었고, 벌써 아침과 저녁으로는 스산한 가을바람이 옷깃에 스민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인간의 작은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계절의 섭리 또한 하나님의 원대한 설계의 일부일 터이다.

지난 9월 1일 주일 설교에서, 이강찬 목사는 ‘주인의 궁극적인 관심’에 대해 설명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마 13:29~30)는 말씀에 숨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되새겨 보게 하는 귀한 설교였다.

1,2월 사역 중 소개할 만한 내용 - 수련회나 새봄 성경학교 관련

올해는 추석이 이르다. 9월 18일 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몇 십 년만의 처음이라는 올해 무더위도 시간을 이길 수는 없었고, 벌써 아침과 저녁으로는 스산한 가을바람이 옷깃에 스민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인간의 작은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계절의 섭리 또한 하나님의 원대한 설계의 일부일 터이다.

지난 9월 1일 주일 설교에서, 이강찬 목사는 ‘주인의 궁극적인 관심’에 대해 설명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마 13:29~30)는 말씀에 숨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되새겨 보게 하는 귀한 설교였다.

♣ 지혜로운 자녀 양육

♣ 교육목회원 소식

1,2월 주요 단신

3월 광고